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6월 19일부터 이틀간 서신관 직원식당에서 '아이디어 스페이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아이디어 제안을 독려하는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하는 '아이디어 팩토리' ▲고객 경험 개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아이디어 AM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우수제안 내용과 아이디어 팩토리 프로토타입 등이 소개됐다. 사진은 전시 작품을 살펴보고 있는 직원들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나호 정답



제750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문화·생활정보 - 나가볼까 즐겨볼까 한강'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영상의학팀 이정화 대리가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5년 7월 15일(화)
발표 제754호(2025년 8월 1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이가을(진료지원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민정(수술간호팀)
정미희(응급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원서진(수술간호팀)
황숙정(중환자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강신아(어린이병원간호팀)
김향연(연구지원팀)
유나리(영상의학팀)
유정미(심장혈관흉부외과)
차수미(수술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이소정(수술간호팀)
이은숙(의료정보관리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52 2025. 7. 1



키르기스스탄에 전한 희망

열악한 환경으로 제대로 된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해외 환자들을 찾아갔다.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이 6월 16일부터 3일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쳤다. 720여 명의 현지 환자들을 진료하고 초음파와 내시경 검사, 백내장 수술, 양성종양 제거술 등을 실시했다. 의료봉사단장을 맡은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는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진과 교류하며 우리 병원의 선진 의료 기술을 직접 전수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병원 설립 이념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의료봉사로 희망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의료봉사에 참여한 유방외과 이새별 부교수(왼쪽 세 번째)가 현지 의료진과 함께 양성종양 제거술을 집도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3면)

02 NEWS 아·태 최고 임상분야, 심장·내분비·정형 1위

08 협업의 가치 원내 공사 현장의 감염 위험 낮췄어요

10 AMC IN(人)sight 소아청소년전문과 윤지선 조교수

16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작은 배려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아·태 최고 임상분야, 심장·내분비·정형 1위



우리 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2025 아시아태평양 최고 병원 - 임상분야별 평가에서 심장·내분비·정형 분야 1위, 신경·심장수술·암·호흡기 분야 2위, 소아 3위, 신경수술 11위에 올랐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아시아태평양 최고 병원 - 임상분야별 평가에

서 우리 병원이 심장, 내분비, 정형 3개 분야에서 1위에 선정됐다. 우리 병원은 이 3개 분야에서 평가 대상국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우수 병원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의료 수준을 인정받았다. 국내 평가 대상 병원 중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우리 병원이 유일하다. 국내 1위를 차지한 분야도 심장, 내분비, 정형을 비롯해 심장수술, 신경까지 총 5개로 국내 최다를 기록했다. 뉴스위크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글로벌 조사기관 스타티스타와 함께 의료 종사자 8,000명을 대상으로 9개 임상분야별 아시아태평양 최고 병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싱가포르, 대만, 호주,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10개국이며 최종 결과는 공신력 있는 의료 전문단의 검토를 거쳐 최근 뉴스위크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다낭성 신장 증후군 로봇 신장이식 첫 성공



신·체장이식외과 신성 교수, 김진명 임상전임강사(왼쪽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비롯한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로봇 신장이식을 받은 이가영 씨(가운데), 신장 공여자인 언니(왼쪽 네 번째)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체장이식외과 신성 교수, 김진명 임상전임강사팀이 최근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이가영 씨(여, 24세)에게 로봇으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의 로봇 신장이식 성공은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다낭성 신증후군은 신장에 수없이 많은 낭종이 발생해 신장이 최대 축구공만큼 커지는 유전 질환으로 대부분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진다. 보통의 만성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식을 할 때 기존 신장을 그대로 둔다. 하지만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는 새 신장이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고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해진 기존 신장을 양쪽 모두 떼어내야 한다. 고난도 수술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환자 안전을 위해 시야 확보에 좋은 개복 수술이 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신 교수팀은 그동안 로봇 신장이식 180례를 시행하며 쌓아온 우수한 수술 성적을 바탕으로, 이식 결과와 회복 측면에서 모두 장점이 큰 로봇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이 씨의 배꼽 주변으로 1cm 구멍 3개와 신장이 들어갈 수 있는 6cm의 절개창을 내고, 로봇팔을 넣어 비대해진 기존 신장 양쪽을 모두 떼어냈다. 이후 공여자인 언니로부터 받은 한쪽 신장을 안전하게 이식했다. 이 씨는 수술 중 출혈도 적었으며, 입원 기간 동안 합병증 없이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며 수술 후 5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의료봉사단, 현지 주민 치료와 의료진 교육



6월 16일부터 3일간 의료봉사를 진행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살름베코프 의과대학 부설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 지역을 외국으로 확장한 2009년 이후 56번째 해외 의료봉사이며, 키르기스스탄은 2023년 첫 방문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키르기스스탄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민간병원이 없고 국립종합병원은 시설과 의료장비 수준이 낙후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안과 사호석 교수,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

수, 호흡기내과 이세원 교수 등 의사직 10명, 간호직 21명, 약무직 2명, 보건직 4명, 사무직 2명 등 총 39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3일간 720여 명의 현지 환자를 진료했고 ▲백내장 수술 33건 ▲익상편 절제술 8건 ▲후발성백내장 치료술 8건 ▲안검하수 수술 2건 ▲눈꺼풀주위 혹 제거술 2건 ▲양성종양 제거술 2건 ▲상부위장관 내시경 9건을 시행했다. 봉사단은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현지에 선진 의료를 전수했다. 내시경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고난도 내시경 진단 및 치료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고 중환자의학과 중재시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현지 의료진은 진료, 수술, 시술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고난도 술기를 익혔다. 암병원간호2팀 장유진 사원은 “치료가 꼭 필요한 현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다. 나눔 정신을 실천하며 계속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의료기술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를 돕는 ‘아산 인 아시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월 29일부터 일주일간 키르기스스탄에 창상 관리 및 미세수술 술기를 전수하고 있다.

응급수술 전문의 상주, 수술까지 70분 빨라져



홍석경 교수



이건희 임상강사

우리 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급 성기외과 (ACS, Acute Care Surgery)’ 시스템이 외과응급수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응급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며 응급수술을 대응하던 기존 당직제(On-call System)와 달리, ACS 시스템에서는 응급실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기본 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외과응급수술

전담 전문의가 진료에 참여해 수술 결정, 집도, 경과 관리까지 직접 진행한다.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 이건희 임상강사팀은 2014년부터 5년간 우리 병원을 포함해 ACS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국내 3개 병원의 응급 일반외과 수술 환자 2,146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실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22.1분에서 452.2분으로 약 70분 단축됐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38.8%에서 31.3%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ACS 시스템 도입 이후 주말 수술 비율이 약 12% 증가하며 요일이나 시간대에 관계없이 응급수술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외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호주·뉴질랜드 외과학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팔꿈치 인공관절 재수술… 치료 결과 평가에 PROMs 중요



전인호 교수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 후 수술 부위가 감염되거나 인공관절이 느슨해지면 재수술이 필요하다. 재수술은 첫수술보다 난도가 높고 팔꿈치 기능 회복 측면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통증 점수에서는 두 그룹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병원에서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51명(첫수술 32명, 재수술 19명)의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팔꿈치 가동 범

위와 기능 점수에서는 첫수술군이 각각 107.6도, 79.5점을 기록해 재수술군 85.8도, 65점보다 높았다. 하지만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는 첫수술군 4점, 재수술군 4.1점이었고 통증 점수는 두 그룹 모두 1.6점을 기록해 그룹간 차이가 없었다. 팔꿈치 인공관절 재수술 후 통증이 크게 줄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이상 수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인호 교수는 “치료 결과를 평가할 때 환자의 감정과 일상 회복을 반영한 자기평가 지표(PROMs)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견주관절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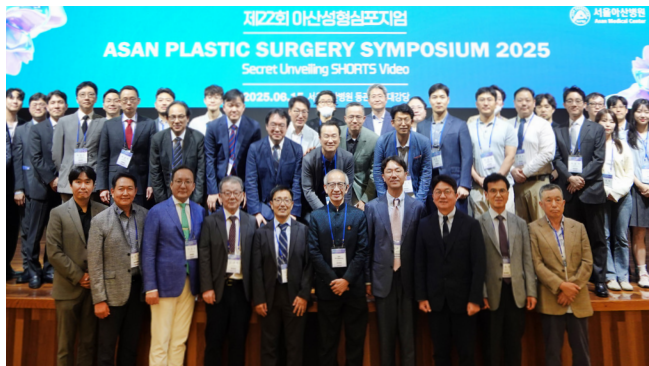
올바른 감염관리 체험하는 ‘핸드썸 챌린지’



행사에 참여한 내과간호팀 직원이 중심정맥관 허브 소독체험 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내과간호1팀의 감염관리 링크인 활동 연합팀인 ‘TIP(Team for Infection Prevention)’가 주관하는 감염관리 활동 ‘핸드썸 챌린지’가 6월 17일 동관 7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내과간호1팀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형광로션과 UV 뷰박스를 이용한 올바른 손위생 ▲유치도노관의 올바른 고정 ▲올바른 중심정맥관 허브 소독 ▲안전주사실무를 위한 고위험 약물 준비 등 감염관리 표준 수칙 준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실습 활동이 진행됐다.

아산성형심포지엄



6월 15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2회 아산성형심포지엄이 6월 15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의료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안각 재건술 ▲3D 프린팅 임플란트를 활용한 코 성형 ▲경부윤곽 개선을 위한 악하선 축소술 ▲악교정 환자의 코 성형 ▲흉터를 최소화한 이마 축소술 등 미용성형 전 분야의 수술 영상을 시청하고 핵심 술기를 토론하며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오태석 성형외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국내·외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온 연자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재단 창립 48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6월 19일 열린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4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 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 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을,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소멸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경북 영양군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구소멸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는 ‘디지털 대전환기 인공지능 정서 지원 돌봄 로봇의 역할과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돌봄 로봇의 역할과 미래 돌봄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뇌졸중센터 심포지엄



6월 13일 열린 뇌졸중센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뇌졸중센터 심포지엄이 6월 13일 동관 대강당에서 ‘모야모야병의 최신 이해, 치료 접근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

번 심포지엄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의학유전학 등 모야모야병 관련 의료진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개강내 뇌혈관 협착 질환의 진단과 내과적 치료 ▲모야모야병의 유전 및 바이오마커 연구 ▲모야모야병 환자의 수술 치료와 합병증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권순억 뇌졸중센터소장은 “유전학 지식의 증가와 영상 기법의 발전으로 두개강내 뇌혈관 협착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이 뇌졸중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양내과 의료진 미국임상종양학회서 발표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가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5)에서 구연 발표를 하고 있다.

종양내과 의료진이 5월 30일부터 5일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5)에서 항암치료 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ASCO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 학회로 4만여 명의 항암치료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치료법, 연구 동향 등을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 학회에서 ▲김성배 교수, 정혜현 조교수는 ‘정맥주사 파

클리탁셀에 대한 비열등한 대안으로 경구용 파클리탁셀’을 주제로 구연 발표를 진행했으며 ▲류민희 교수, 김형돈 조교수는 ‘위암 환자의 치료 전략 수립을 위한 클라우딘 18.2 발현 및 면역 표현형의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 개발’ ▲이재련 교수는 ‘치료 경험이 있는 전이성 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 ARC-20 HIF 억제제와 카보잔티닙 병합 요법 1상 임상 연장 결과’와 ‘투명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항암치료제로 펌브롤리주맙을 사용한 Keynote-564 연구의 장기간 결과’ ▲유창훈 부교수는 ‘글리피칸-3 양성 진행성/전이성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CD8 유도 T세포 결합제(AZD9793) 인간 최초 1상 연구’와 ‘진행성 담도암 환자에서 MDM2 유전자 증폭의 분자 프로파일 특성 및 임상적 영향 분석’ ▲방영학 임상강사는 ‘EGFR-TKI 내성 비소세포암에서의 인공지능 기반 종양미세환경 분석’을 주제로 각각 포스터 발표를 했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연수강좌

제1회 간이식·간담도외과 연수강좌가 6월 21일 아산생명과학 연구원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열렸다. ‘간이식과 간담체 수술의 혁신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연수강좌에는 간질환 분야 의료진 1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강좌에서는 ▲로봇 간 절제술의 실제 ▲복강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의 적용 범위 ▲간이식 수술에서의 혈관·담도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우리 병원 간이식팀 의료진의 중증 간질환 환자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호흡기내과 연수강좌

제27회 호흡기내과 연수강좌가 6월 21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폐암 진단 및 치료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강좌에는 폐암 분야 의료진 1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강좌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폐결절의 영상학적 평가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과 빅데이터 역학 연구 ▲중입자를 활용한 폐암 치료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폐암의 항암화학요법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달의 후원자

개인 및 단체		불우환자 지원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유성	2,600,000원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남종현	100,000,000원	김주연	1,000,000원	박준규·한승아·박서준	602,000원
다인산업개발(주)	100,000,000원	이동호	1,000,000원	윤지선	300,000원
배준호	100,000,000원	이희철	5,000,000원		
이혜리	50,000,000원	장현종	1,000,000원		
(주)유비엠메카트로닉	100,000,000원	전도연	200,000원		
- 2025년 6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 정

이승규 석좌교수, 윤영인 부교수 학회서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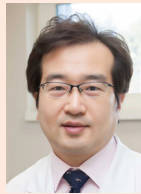
이승규 석좌교수



윤영인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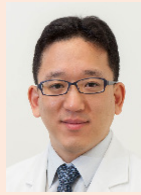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 윤영인 부교수가 5월 27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간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이승규 석좌교수는 간이식 분야의 학문적, 임상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윤영인 부교수는 ‘혈액형 부적합 생체 간이식에서 미만성 간내 담도 협착의 위험인자 규명’을 주제로 한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다.

전재용 교수 국책과제 수주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사업인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비침습적 황색신경 자극 기반 호흡기능 재활 전자약 개발’과 ‘림프부종 완화 및 관리를 위한 AI 영상 모니터링 기반 다중 자극 레이저-초음파 치료기기 개발’ 등 두 건의 연구 분야에 대해 전임상연구부터 임상적용, 인허가 절차에 이르는 핵심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사업은 202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과제별로 각각 53억 2,000만 원, 5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영훈 교수 학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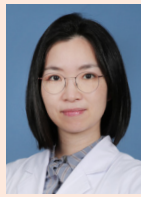
신경외과 김영훈 교수가 6월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5차 대한뇌종양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임상연구부문 학술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뇌수막종 또는 두개인두종 내시경뇌수술 후 비중격피판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를 이용한 두개저재건술에 대한 다기관 연구’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송우정 교수 BMJ 온라인 임상교육 플랫폼 저자 참여



알레르기내과 송우정 교수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영국의학저널(BMJ)」이 운영하는 온라인 임상교육 플랫폼 ‘BMJ Best Practice’에 저자로 참여했다. BMJ Best Practice는 최신 연구와 국제진료 지침에 기반해 1,000여 개의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임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으로 전 세계 180개국 이상의 의료진이 진료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송 교수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 챕터에서 비염, 부비동염 등 상기도 질환과 연관된 만성기침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최신 지견을 제시했다.

구현정 부교수 금메달



영상의학과 구현정 부교수가 6월 12일부터 3일간 열린 제18차 아시아심장혈관영상의학회(ASCI) 국제학술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이 상은 최근 5년간의 학술 업적과 학회 기여를 인정받은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김연주 임상전임강사



김하정 부교수



고원욱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6월 14일 열린 제33회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술대회에서



김형태 교수



장화영 임상전임강사

임상전임강사, 김하정 부교수, 고원욱·김형태 교수팀은 ‘제2세대 성문상기도삽입장치를 통해 위강 내 삽입된 식도 프로브를 이용한 소아 심부체온 측정의 유용성과 정확도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를 주제로 APM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장화영 임상전임강사는 ‘팔로 사 징후 수술 중 저산소증 동안 나타나는 영아의 뇌파 억제 및 관련 요인 분석’을 주제로 최우수초록상을 받았다.

중환자·외상외과 의료진 학회서 수상



김혜빈 임상강사



이건희 임상강사



정윤중 차장

중환자·외상외과 의료진이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김혜빈 임상강사는 5월 30일부터 3일간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외과계 응급의료체계 현황: 국가응급진료정보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주제로 젊은연구자상을 받았고, 이견희 임상강사는 6월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24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 시 불충분한 영양 섭취: 중환자치료 이후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영양 프로토콜의 필요성’을 주제로 학술상을 받았다. 외과간호1팀 정윤중 차장은 3월 21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장기간 기계환기를 받은 중환자실 생존자의 연하장애: 전향적 연구’를 주제로 우수 학술상을 받았다.

감염관리팀·시설팀·IT서비스팀

“원내 공사 현장의 감염 위험 낮쳤어요”

감염관리팀은 병원 내 공사 현장을 돌며 감염예방 조치를 모니터링한다. 어느 날, 현장들을 점검하던 중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공사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분진 차단막이나 비산 방지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일정은 중단됐고, 필요한 조치가 모두 완료된 뒤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병원 곳곳에서 진행되는 많은 공사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감염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공사 중 발생하는 분진과 진균은 각종 알레르기, 수질 오염, 치료기구 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환자, 보호자, 직원 모두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분진 차단, 음압 유지, 출입 통제 등 공사와 관련된 감염 요인의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팀과 감염관리팀은 공사 시작 전에 공사 유형, 장소에 따른 위험영향인자를 파악하고 감염예방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공사 진행은 시설팀, 공사 감염관리 모니터링은 감염관리팀이 각각 담당하고 있고 두 부서 간 소통도 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로 이뤄져 감염관리 협의가 누락되거나,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공사 정보가 감염관리팀에 누락 없이 전달되고 감염 예방 조치 현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진 이유다.

서로를 이해하는 일

지난해 2월, 감염관리팀, 시설팀, IT서비스팀은 공사 감염관리 전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업을 시작했다. 공사 진행 과정, 감염관리 절차 등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는 작업이었다. 시설팀은 현장에서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를, 감염관리팀은 감염위험 평가와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해 나갔다. IT서비스팀은 회의에서 오가는 수많은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해석해 전산 시스템에 구현했다. 서로의 전문 영역을 이해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었다.

10개월 동안 수십 차례의 실무자 회의와 프로그램 테스트를 거쳐, 병원에서 시행되는 공사들을 한눈에 조회하고 감염관리



왼쪽부터 IT서비스팀 류호용 유닛 매니저, 조광훈 시설팀장, 협력업체 엠투아이티 김지연 부장, 감염관리팀 이정영·박지혜 대리, 시설팀 김영인 대리, IT서비스팀 유용만 과장.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다.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한 공사를 감염관리팀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감염 위험 요소를 빠르게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환자와 직원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직접 노출될 위험도 크게 줄었다. 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던 협의도 AMS 3.0으로 통합되며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역시 높아졌다.

“단순히 전산 화면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부서가 서로의 전문 영역을 이해하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고 개선점을 함께 찾아간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 시설팀 김영인 대리

환자와 직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세 부서는 시설팀이 주관하는 계획 공사뿐 아니라 천장 타공, 벽면 일부 절단, 누수 보수 등 작은 규모의 유지보수에서도 감염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의 역할과 관점을 이해하며 쌓은 신뢰는 다음 협업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사소한 시설 유지보수 작업도 환자에게 직·간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직원 모두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염관리팀 박지혜 대리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측성 시옷붕합 조기유합증 사경 교정의 두개골 신연술 효과



신경외과 변유경 임상전임강사

신경외과 변유경 임상전임강사는 지난 5월 열린 제37차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일측성 시옷붕합 유합증 환자에서 신연골형성술의 사경 교정 효과’를 주제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일측성 시옷붕합 조기유합증 환자에서 동반되는 사경의 교정에 두개골 신연술이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향후 환자 맞춤형 치료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연구의 배경은? ‘일측성 시옷붕합 조기유합증’은 영아의 두개골 중 시옷 모양의 봉합선이 한쪽만 조기에 닫히는 질환으로 전체 두개 조기유합증 환자의 약 1~5%에서만 나타나는 드문 형태다. 두개골 봉합선 중 한쪽이 정상보다 일찍 닫히면 귀 뒤쪽 뼈인 유양돌기의 돌출과 반대편 정수리 부분의 두정골 돌출이 동반된 비대칭 변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두개저가 비뚤어져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경이 발생할 수 있다. 두개 조기유합증의 수술적 치료법에는 내시경 봉합절제술 및 헬멧 요법, 두개골 신연술, 두개 성형술 등이 있다. 이 중 두개골 신연술은 뼈를 서서히 늘려 뼈와 연부조직을 동시에 확장하고 머리모양과 두개저의 기울어진 축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들이 조기유합증으로 인한 사경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시경 봉합절제술과 두개골 신연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 전후 사경 교정 정도를 비교해 향후 개선된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병원에서 일측성 시옷붕합 조기유합증으로 내시경 봉합

절제술과 두개골 신연술을 받은 환자 중 최소 1년 이상 경과 추적이 가능한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두개골 모양의 전반적 비율과 좌우 비대칭 정도, 사경의 각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수술 전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두상 비율과 위에서 본 좌우 비대칭 정도는 두 수술 모두 비슷한 개선도를 보였다. 하지만 정면에서 본 좌우 비대칭과 사경 각도는 두개골 신연술을 받은 그룹에서 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 사경이 호전된 환자 비율도 두개골 신연술 그룹이 약 86%의 높은 호전율을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두개 조기유합증은 다양한 수술적 접근이 가능한 질환으로, 우리 병원은 신경외과와 성형외과가 협진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연구로 두개골 신연술의 사경 교정 가능성을 확인했다.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해 이 치료법의 정확성과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연령과 변형 양상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연구의 초점을 맞춰 나갈 예정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회복할 거라 믿어요”



소아청소년전문과 윤지선 조교수 우리 병원 소아호흡기·알레르기센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소아 중증 만성 호흡기 질환과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환아들이 찾아온다. 신약 및 면역 치료의 발전에 더해 윤지선 조교수는 환아와 그 가족의 눈높이를 맞춘 치료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간다. “소아의 모든 기관이 줄기세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싶던 환아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조금씩 좋아지며 입원 횟수가 줄어드는 변화를 보이거든요. 성인과는 다른 회복 능력에 매일매일 기쁨도, 기대도 커지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인턴 때 소아청소년과에 가고 싶다고 하니 모두들 잘 어울린다며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때 다른 과를 권유 받았다면 다른 생각도 해봤을 텐데…(웃음)” 윤지선 조교수는 우리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뒤 자리를 옮겼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오자마자 폐이식 환아를 담당할 만큼 우리 병원의 중증도는 매우 높았다. “이전 병원에서는 원래 건강했던 환자를 치료해서 금방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 병원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해요. 기관절개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거나

이른둥이로 미성숙한 폐를 갖고 있고, 심한 폐렴이나 감염을 앓아서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순간순간 들죠. 휴일에도 빠지지 않고 회진하는데, 환아 부모님들께서 이 점을 무척 고마워하시면서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세요. 아이들은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방글방글 웃고요. 성인 환자 치료와는 또 다른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폐를 가진 호흡기 환아들에게 소아재활의학과와 협진하여 호흡 재활을 하면서 보조적인 호흡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간다. 알레르기 분야는 신약이 많이 나오면

서 치료의 폭이 넓어지고 면역 치료도 활성화되고 있다.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으로 매일 가려움과 각질, 감염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신약 주사를 처방하면 표정부터 밝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계란이나 우유 등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경구 면역 치료를 진행하는데, 원인 물질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노출을 늘려 면역 항체를 키우는 원리다. 소량만 섭취해도 전신 두드러기와 아나필락시스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빈번해 평소 노출에 대한 불안이 높고 온 가족이 음식을 제한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들에게 치료 만족도가 높다. “면역 치료 중에 갑자기 붓고 전신 두드러기 등으로 응급 처치가 필요할 수 있어 1차 병원에선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하면서 안전하고 익숙해졌다는 판단이 서면 지역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료를 뒷받침하는 연구

윤 조교수는 같은 과 유진호 교수와 소아 천식 코호트를 구축하고 국내 소아 천식 환자들의 천식 완화·악화 변화 동향을 살피는 연구를 8년째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해 알레르기 면역 치료법과 면역 치료 도구를 개발 중이다. “천식 진단을 들은 환아 부모님들은 평생 아이가 흡입기를 달고 사는 걸 가장 걱정하세요. 그럴 때 국내 평균 데이터를 근거로 천식 유병률이나 위험인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치료 관리의 동기부여가 되죠. 임상적인 역학 연구도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환아의 진단명을 쉽게 찾지 못할 때, 윤 조교수는 열심히 찾아보고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 환자에게서 시작된 궁금중과 아이디어는 연구로 이어진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 연구에서 느끼는 보람도 커서 치료 지침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아의 어머니가 치료에 필요한 스테로이드 처방을 거부한 적이 있다. 싸워도 봤지만 설득은 쉽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강요보다 이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차츰 알게 됐다. “딱 2주만 제 제안대로 해보고 차도가 없으면 다른 병원에 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상태가 호전되는 변화를 가정에서 어머니가 먼저 알게 돼요. 일단 아이가 폭지고 덜 보채니까요. 그후의 치료는 훨씬 수월해지죠.” 윤 조교수는 자녀를 키우면서 환아 부모의 궁금중과 요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불안하면 우는 아이들에겐 따뜻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여유로운 태도로 거리를 좁혀 나간다. “진료 때 환아와 눈을 맞추고 지금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려고 해요. ‘선생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하죠. 아이가 치료의 주체가 되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보는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거센 파도를 만난 순간, 곁을 지키는 간호

고난도 간담도 수술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94병동에선 환자 상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간이식·간담도외과 환자의 배액관 및 수술부위 관리, 투약 및 치료 중재, 환자 교육, 퇴원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며 환자의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고 간호해야 한다. 간성혼수, 복수와 황달, 부종 등으로 전체적인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된 중환자가 다음 치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간호 과정은 꽤 복잡하다. 배액 관리와 감염 예방, 통증 조절이 회복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간호 계획이 따라야 하며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 역시 중요하다. 특히 94병동에선 수술적 치료가 불가한 환자에게 대증적 요법 등을 시행하면서 내·외과 간호 특성을 모두 갖는다. 수술 후 환자들이 겪는 여러 합병증과 심리적 스트레스, 영양 관리 등의 문제들은 다양한 직역과 협업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수술 후 7일에서 14일 간의 입원 여정 끝에 웃는 얼굴로 환자를 배웅할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의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곳이다.

외과간호2팀 장초롱 과장

장초롱 과장은 간이식·간담도외과 병동에서 간암, 비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간호를 수행하며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퇴원을 목표로 하는 외과 특성상 간호의 우선순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16년차 간호사이지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짙은 여전하죠.” 예전에 소아청소년중앙혈액과 병동에서 쌓은 11년의 임상 경험에 이어 간호교육행정팀에서 간호 시스템을 두루 살피는 역할을 맡아 왔다. 다방면의 강점을 키워왔지만 성인 외과 환자 간호는 전혀 다른 경험의 연속이었다. 병동 환자들의 가장 흔하고 불편한 증상인 통증을 관리하고자 간호 챔피언에도 도전했다. “환자분들이 회복한 뒤에 건네는 ‘고맙습니다’ 한마디, 밝은 미소가 제 마음 속에 작지만 빛나는 조각들이 됩니다. 간호사는 매일 특별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내가 부족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 많던 간호사였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16년간 애써왔던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간호 전문성을 키우고 심도 있는 간호를 수행할수록 느끼는 보람도 커져요.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병동이지만 환자분들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수술 후 폐합병증 예방을 위한 공 흡입기 운동(COACH)을 교육하는 모습.
2. 침상 위에 통증 안내문을 부착하면서 통증 사정과 관리가 수월해졌다.
3. 장초롱 과장이 투약준비구역에서 투약카드를 확인하고 있다.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한 환자는 매시간 석션하고 재활 치료를 진행하면서 점차 장기전으로 가고 있었다. 중환자실을 오간 것도 이미 여러 번. 환자는 우울감이 커지고 있었다. ‘무엇을 더해줄 수 있을까?’ 장초롱 과장의 관심이 쏠렸다. 한 간호사는 크레파스와 연필을 쥐여주며 환자의 마음을 다독였고, 또 누군가는 주말에 걷기 재활을 도왔다. 유닛 매니저의 요청으로 병동을 방문한 영양사는 식이 변경에 따른 설사를 호전시키기 위한 간호사 교육과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해 주었다. 병동의 모든 부서원이 언젠가 환자가 웃음을 띠며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한마음으로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해내고 있다.

“사를 쓰던 환자분이 있었어요. 완치 가능한 치료법이 없어 환자분은 헛헛함과 걱정을 안고 계셨죠. 하루는 그분의 시집을 사서 ‘작가님, 사인 좀 해주세요’라며 다가갔어요. 질환 말고 다른 화두가 생긴 것만으로 환자분께 따뜻한 봄바람이 분 듯했어요. 그 뒤로 씩씩하게 치료를 받으시곤 웃으며 귀가하셨죠.”

장 과장은 통증관리 챔피언 교육을 받으며 ‘통증 간호 레벨 테스트’와 ‘나의 통증 간호 되돌아보기’ 설문 내용을 병동 동료들에게 공유했다. 환자의 통증과 불편감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침상 머리맡에 “당신의 통증은 몇 점인가요?” “어떤 통증이 느껴지나요?”라는 질문이 적힌 안내문을 부착했다.

“통증 사정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한 지 1년이 지났어요. 통증을 사정할 때 환자가 머뭇거리면 이제는 보호자가 ‘저 통증 점수를 보고 말하면 되잖아’라고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직관적인 이미지와 예시 문구가 담겨 있어서 환자분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증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개입하고 사정할 수 있는 변화의 씨앗은 환자 만족도와 치료 효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수술 후 섬망이 생긴 환자가 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자, 가족도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냈다. 장 과장은 환자 가족을 따로 불렀다.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이 섞여 혼란스러운 환자의 인지 상태를 차분히 설명했다. “섬망 환자는 저녁노을 속을 걷는 사람과 같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는 건 상황이 호전된 후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어요.” 잠시 감정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라는 설득에 환자 가족도 수긍했다. 섬망 증상이 곧 호전된 환자는 가족의 손을 잡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환자와 가족 모두 고맙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최근 병동에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가 늘고 있어요. 더 나은 삶의 마무리는 어떤 형태인지 늘 고민해 봐요. 환자와 가족에게 후회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 사랑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더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조연하고요. 작은 도움을 드리며 나는 내 일을 사랑하고, 행복한 간호사라는 걸 깨닫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잡(job)·담(談)’ 코너에서는 우리 병원 각 부서의 전문가에게서 일의 수고와 기쁨을 들어봅니다.

사진 이야기 ①

기술과 예술의 공존: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인상주의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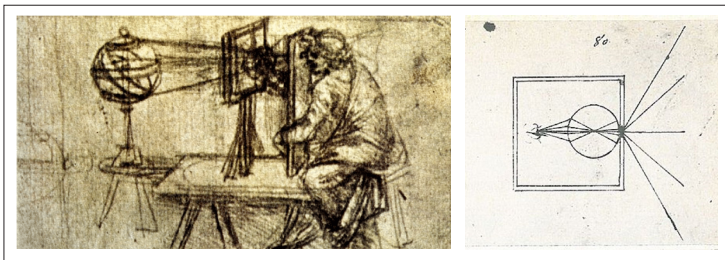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19세기에 발명된 사진기가 화가들로부터 ‘정밀 묘사의 의무’를 빼앗은 뒤, 회화는 사진이 할 수 없는 인상주의와 아방가르드로 근대 미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곧 AI가 지능을 보조·대신하게 되면, 인류는 후속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어둠 속에 비친 그림, 카메라 옵스큐라의 탄생

라틴어로 ‘어두운 방’을 뜻하는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는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바깥 풍경을 벽면에 투사하는 원리를 이용한 스케치 도구입니다. 중세의 그림은 대부분 종교적 작품이었고, 원근법과 사실성을 무시하고 중요한 사람을 크게 그렸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르네상스로 접어들며 카메라 옵스큐라는 사실감과 원근감을 표현하고 싶은 화가들의 비밀 도구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초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노트에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작은 방에 뚫은 바늘구멍으로 외부 풍경을 얻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그림1). 그는 이 광학 장치 활용해 보라고 화가들에게 제안까지 했는데, 정작 자신이 썼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대 여러 화가들이 이 ‘어둠의 상자’에 흥미를 보였지만, 투영된 영상을 따라 그리는 행위가 순수한 예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림1]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을 모아놓은 코덱스 아틀란티쿠스(1515)에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 (비블리오테카 암브로시아나 도서관)

르네상스 화가들의 비밀 무기

15세기 초 이탈리아의 마사초가 선 원근법을 확립한 이후 르네상스 화가들은 광학 지식을 이용해 경쟁적으로 정교한 원근감을 구현하며 현실감 넘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그림2 왼쪽). 현대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는 15세기에 이미 일종의 카메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대 많은 화가들이 거울과 렌즈로 이미지를 비춰보고 따라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한 묘사들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르네상스 회화에서 드러나는 광학의 힘은 훗날 사진기 발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뉴욕커들이 제일 좋아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빛의 화가’로 불립니다. 사진처럼 정밀한 빛 표현과 고요한 분위기로 유명하죠. 베르메르의 작품에는 연필 밑그림이나 수정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베르메르의 ‘군인과 미소 짓는 여인’을 보면 전경에 앉은 병사가 후경의 소녀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그림2 오른쪽). 이는 실제 눈보다는 카메라 렌즈로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림2]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멘테나가 원근법으로 그린 천장화 ‘오콜루스’(왼쪽)와 베르메르의 ‘군인과 미소 짓는 여인’(오른쪽)

하지만 그가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빛의 미묘한 색감과 질감을 캔버스 위에 재현해 낸 섬세한 솜씨는 전적으로 그의 몫입니다. 광학과 예술적 감각의 만남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기의 발명과 예술계의 충격, 떠오르는 인상주의

19세기, 화학과 광학의 발전으로 프랑스 미술가 루이 다게르가 은판에 상을 맺히게 하는 방법을 발명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사진기가 탄생했습니다. 1839년 프랑스 학술원에서 은판 사진술(다게레오타이프)이 공식 발표됐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빛으로 그림을 그린다(photo-graphy)’는 사진술은 과학적 쾌거인 동시에 예술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초상화나 풍경화를 그릴 생계를 잇던 화가들은 몇 분 만에 사실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계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화가 폴 들라로슈는 다게르의 초기 사진기를 본 뒤 “오늘부터 회화는 죽었다”고 탄식했다고 하죠. 19세기 중반 렌즈와 광학의 발달로 노출 시간이 단축되고 화상도 더욱 선명해지는 등 사진기 기술은 계속 진보해 왔습니다. 1888년에는 조지 이스트먼이 롤필름을 장착한 ‘코닥 카메라’를 내놓으면서 카메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로 정착했습니다.

사진의 등장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까지 미술의 최고 가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화가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재현할 수 있게 되자 귀족과 부유층이 화가에게 의뢰하던 초상화 수요가 급감하고 카메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사진관이 등장하자 소수 특권층의 몫이던 초상을 대중들도 값싸고 빠르게 남길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사진기는 풍경, 건축물, 심지어 전쟁의 참상까지 즉각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의 세계관과 사회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크림 전쟁, 남북전쟁, 1차 세계대전을 담은 전쟁 사진들은 사실주의 회화가 담아내지 못한 날것의 현실을 대중에게 전했고, 이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 재현의 몫을 사진이 넘겨받게 되면서 화가들은 역설적으로 현실 묘사의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예술가들은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 젊은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빛과 색채의 순간을 포착하는 ‘인상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야외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광의 효과를 관찰하며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색과 형태를 캔버스 위에 옮겼습니다. 인상주의의 탄생으로 주관적인 인상, 순간의 분위기, 색채의 아름다움 등이 회화의 주요 테마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사조는 전통적인 예술에 반발해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는 아방가르드로 이어집니다.

기술 혁신이 바꾼 예술의 풍경, AI는?

분명한 사실은 사진도 회화도 죽지 않고 공존하며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의 등장에 밀려난 듯 보였던 회화는 결국 사진이 해낼 수 없는 예술적 표현의 영역을 개척하며 근대 미술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동시에 사진은 19세기 후반부터 예술 사진, 보도 사진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 등장했을 때 화가들이 느낀 불안처럼, 오늘 우리는 AI 시대에 인간이 설 자리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창의성과 표현 욕구는 지속된다는 것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회화는 모두 빛의 예술이며 서로 영감을 주고 한계를 확장시키는 동반자입니다. AI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성의 본질인 ‘창의’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대언어모델 등 AI가 얼마나 더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진 훈련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활용에 집중할 시대입니다. AI가 잘하는 데이터 처리, 반복 작업 등을 맡기고, 인간은 AI 활용 시스템을 설계하고 AI를 모니터링하며, 창의·윤리·감정 등의 요소와 전략적 사고로 AI를 개선하는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역할 재배치가 필연적이겠지만, 새로운 직업이 많이 창출될 지도 모릅니다. AI 설계자, AI 감시자, 인간-AI 협업 전문가, AI 치매 방지 말동무, AI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사… 미래는 재미있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미래 예측은 ‘미래를 직접 발명’하는 것입니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은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피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7월부터는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가 ‘사진 이야기’를 주제로 세 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작은 배려로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암병원간호2팀 김시안 사원

첫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있었다. 병실에 들어온 첫 날 환자는 보호자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환자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우울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운 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조심스럽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었다.

그러자 환자는 “침대 옆 기계에서 뻤뻤~ 소리가 나는데 마음이 불안해 침대에만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수액을 주입하는 인퓨전 펌프에서 나는 경고음이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병원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환자는 간호사에게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인퓨전 펌프를 바로 교체했고 경고음이 멈추자 환자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 그날은 맑은 하늘에 햇살까지 따사로워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이 좋은 날씨를 조금이라도 환자가 느낀다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식사와 복약 시간이 오기 전까지 보호자와 함께 잠시 병원 앞 단풍길을 걸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환자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다.

잠깐의 외출이었지만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선선한 바람과 울긋불긋한 단풍이 환자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준 듯했다. 약을 전달하러 병실에 들어갔을 때 환자의 수액걸이대에 단풍잎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마치 가을이 환자에게 건넨 작은 선물 같았다.

“단풍잎과 함께 오셨네요! 가을이 환자분을 따라온 것 같아요”라고 웃으며 인사하자 환자는 환하게 웃으며 “덕분에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라고 말했다. 그러곤 그 단풍잎을 다이어리 속에 조심스럽게 끼워 보관했다.

간호사로서 내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환자에게는 웃으며 따뜻한 말을 건네자’는 것이다. 병원 생활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힘든 시간일 것이다. 특히 환자에게는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게 다가온다. 환자와 함께 지내다 보면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이 생각보다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앞으로도 환자들이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로 안심을 전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생각해 볼 것들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우리는 모두 입사 당시 같은 기준을 통과해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 선별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비교가 이뤄지고 성과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자연계의 정규분포 곡선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에 가까운 성과를 보이며, 아주 뛰어나거나 낮은 성과를 보이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료의 성과나 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단순히 능력 부족으로만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성과 상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적 조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아웃,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일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할 때, 둘째,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심리 상태나 업무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셋째, 업무 능력은 충분하지만 업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거나 동기 부여가 잘되지 않을 때, 넷째, 실제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업무 역량이 부족할 때 등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도움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우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이상 효과’라는 인지 편향을 보입니다. 특히 지능, 능력, 도덕성 등 긍정적 특성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자신의 강점은 더 잘 기억하고 약점은 간과하거나 합리화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평가 시 비교 대상을 평범하거나 약간

부족한 사람으로 설정해 자신이 그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 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평균보다 잘할 수는 없으며, 여러 연구에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 간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 보고되기 때문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부조화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피드백만으로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명확한 기대치 설정,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한편 누군가의 ‘저성과 상태’를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자인 경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을 때 이를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생각하고 자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관리자 본인의 불안이나 소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상위 성과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직원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기보다 어디까지 개입할지 기준을 정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잠재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현재 직무나 조직이 맞지 않는 것인지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집단에서 다른 직무를 맡으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가 아쉬운 상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직원 추천 의료봉사

따뜻한 나눔 한 스푼



아버지가 몇 해 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으로 귀농하셨다.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까지 차로 20~30분은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산넷에서 '직원 추천 의료봉사' 모집 게시글을 보게 됐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아버지께 의료 봉사 소식을 말씀드리니 정말 기뻐하셔서 봉사 전부터 괜히 뿌듯하고 기분 좋았다.

5월 20일 봉사 당일, 아침에 비가 내려 조금 걱정이 됐지만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가 그쳤다. 서둘러 진료 준비를 마치고 아버지들이 하나둘 진료를 받으러 들어오셨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

셨을 땐 살짝 몽클했다.

● 나는 이날 X-ray 촬영을 맡았다. 처음에는 병원이 아닌 낯선 곳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됐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라며 웃어 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봉사를 오기 전까지도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엔 오히려 내가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은 것 같았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한 분씩 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그 경험 덕분에, 서울에 돌아와서도 매일 하는 업무에 감정이 무뎌지지 않고 한 번 더 진심을 담을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약이나 진료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고 느꼈다. 무엇보다 '어벤져스'처럼 찰떡 호흡을 보여준 사회복지팀과 평창에서 함께 땀 흘린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더 든든하고 즐거웠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더 많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내가 느낀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다.



영상의학팀 이정화 대리

굿바이
콩글리시

'몸살 났어요'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 "I have body ache"라고 한다면 콩글리시다. 한국어의 '몸살'은 피로, 감기, 근육통이 혼합된 증상인데 영어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가 없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쓴다. 근육통 중심일 때는 "I have muscle aches all over", 온몸이 쑤시는 몸살기운은 "My whole body aches"라고 표현한다.

몸살 났어요

☹️ I have body ache.

😊 I have muscle aches all over.

😊 My whole body aches.

Let's Talk

A You look exhausted. 피곤해 보여요.

B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My whole body aches. 감기가 오려나 봐요. 몸살기운이 있어요.



머리가 멍하고 무겁거나 정신이 멍한 상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My head is blank"나 "My head is empty"와 같은 직역 표현은 어색하다. 머리가 멍하고 무거울 때는 "My head feels heavy"나 "I'm feeling foggy", 멍할 때는 "I feel spaced out"이라고 하면 자연스럽다.

머리가 멍해요

머리가 멍해요

😊 My head feels heavy./
I'm feeling foggy.

😊 I feel spaced out.

Let's Talk

A You seem off today. 오늘 좀 멍해 보이네.

B I feel spaced out. Maybe it's the cold medicine. 좀 멍해. 감기약 때문인 것 같아.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수술간호팀 이정수 대리

'AMC인사이트 - 환자에게 진료실이 편안한 장소이길 꿈꿔요' 코너를 통해 소화기내과 홍승욱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병원이 환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본받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외과간호2팀 송호상 사원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 아이들의 웃음이 머문 날' 글이 인상깊었습니다. 업무상 골종양 검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아를 자주 접하는데, 지난 4월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환아와 보호자님께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내년 어린이날에는 봉사에 직접 참여해 아이들의 예쁜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영상의학팀 정민철 대리

'문화·생활정보 - 나가볼까 즐겨볼까 한강' 글이 반가웠습니다. 한강을 통해 자연거로 출퇴근을 하며 보고 느낀 상쾌한 아침 공기, 퇴근길 멋진 노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표정이 떠올라 좋았어요!

내과간호2팀 용민영 사원

'연구노트 - 신장이식 거부반응 조기예측 연구'가 좋았습니다. 신장이식 환자들을 간호하는 153병동 간호사로서 반갑고 관심 가는 연구 주제였어요.

외과간호2팀 한은총 주임

'뉴스 - 노인 환자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실제로 직원들이 노인체험복을 입고 경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노인 환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공감과 간호가 가능할 것 같아요. 미래에 나의 가족이나 내가 환자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SNS 돌보기

[건강플러스]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스트레스는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마치 가슴이 '쪼아는' 듯한 답답한 감정을 말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생각을 멈추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가 끊임없는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돌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리얼스토리] 두경부암 소년, 더 높이 오르다



동호 군에게 서울아산병원은 "끝까지 해보자"라는 약속을 들려준 마지막 병원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입안에 자란 종양은 아무리 제거해도 다시 자랐습니다. 뒤틀린 얼굴과 오른쪽 안면 마비, 그리고 끝없는 치료는 삶의 의지마저 꺾었습니다. 그러나 '멈춤' 대신 '매일의 용기'를 택한 동호 군은 턱걸이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